

# 장성의 미래를 연다 '엘로우게이트'

### "컬러도시 장성 인상 강하게 남기자" 2년 넘게 의견 수렴 후 조형물 설치 도시 가치 높이는 대표 상징물 기대

국도 1호선을 따라 광주에서 장성으로 가다보면 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언뜻 보면 세모와 네모가 겹쳐진 형태의 철골 구조물이 도로 위를 가로질러 웅장하게 서있다. 이 조형물의 이름은 '엘로우게이트'다.

조금은 낯선 느낌의 이 조형물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광주와 인접해 있는 진원면에 설치된 엘로우게이트 역시 전국 최초 컬러 마케팅을 펼치며 노란 색채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장성군의 '의도된' 조형물이다. '엘로우시티'의 문을 여는 장성의 관문이라 볼 수 있다.

#### ● 가로 34m 높이 28m 조형물...장성군의 안정·상승·희망 의미

장성군은 가로 34m 높이 28m 크기의 이 철골 구조물이 장성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인 안정, 상승, 희망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각형은 장성의 안정, 상승, 희망을 상징하고, 사각형은 호남의 중심과 화합을 의미한다.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 사용된 세 가지 색깔에도 각각 의미를 담았다. 삼각형을 받치고 있는 노란색은 '엘로우시티 장성'을 상징한다. 사각형은 태극무늬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쓰였는데 이 곳을 오방색의 중심이기도 한 노란 삼각형이 통과하면서 호남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엘로우게이트 설치와 관련 "다른 도시나 지역을 가보면 도시의 특징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조형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장성은 이렇다 할 상징물이 없어 늘 아쉬웠다"면서 "몇 년 사이 장성이 엘로우시티로 이름을 알리면서 장성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컬러도시 장성'의 인상을 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원면 국도1호선에 설치된 엘로우게이트. 엘로우게이트는 컬러마케팅을 내세운 장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군 제공>

하지만 엘로우게이트가 세워지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었다.

전문가들은 공공조형물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에 예술적 가치와 스토리텔링을 담아 멋진 조형물로 만들어 선보일 때 그 지역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인어공주 동상은 길이가 80cm에 불과한 작은 동상이지만 매년 수 백 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관광자원이다. 동화나라라는 덴마크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성공적인 조형물이다.

하지만 모든 조형물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환영받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만 했다.

장성군은 '엘로우시티'를 상징하는 엘로우게이트를 세우기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했다. 디자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주민이 외면하면 상징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군은 2016년 3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주민을 상대로 디자인 용역보고회를 열고 3가지 디자인 후보를 선정한 후 본격적인 주민선호도 조사에 들어갔다. 군민 1800명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재차 이장과 동장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결정했다.

#### ● '엘로우시티' 미래를 여는 관문... 장성군의 상징으로 비상 기대

최근 엘로우게이트가 설치되자 주민과 방문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도로를 가로 질러 덩그러니 놓인 시설물에 낯설고 어색하다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평범했던 도로에 산뜻한 느낌의 구조물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선보인 엘로우게이트가 장성의 상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형물의 역사를 돌아보면 첫 시작은 순탄치 않은 사례가 많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나 런던의 상징 '런던아이'가 대표적이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를 기념해 설치한 상징물이었지만, 설치 당시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디자인을 두고 도시의 경치를 해치는 흉물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런던아이' 역시 영국 정부의 밀니엄 프로젝트로 추진됐지만 도시 경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설치가 취소되는 소동까지 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도시를 상징하는 유명한 랜드마크로 손꼽히고 있다. 오히려 도시의 가치를 높이며 전 세계의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의 조형물은 그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수모를 겪으며 대변한 경우가 많다.

엘로우게이트가 정말 엘로우시티의 미래를 여는 상징 조형물로 사랑을 받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지만, 몇 년 사이 전국 최초로 색깔 마케팅을 펼치며 '엘로우시티'로 알려지기 시작한 장성이 강렬한 첫 인상을 갖게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장성의 상징이 될 엘로우게이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가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장성군 관계자는 "엘로우게이트가 낯설고 어색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특색이 없었던 장성에 특별한 색을 더해준 상징물 같다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엘로우게이트가 지닌 의미가 알려지면 장성의 대표 상징물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는

장성군은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라는 컬러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색채도시' 마케팅이다.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라는 기상천외한 구상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난해한 작업이었다. 장성군은 장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철학과 비전까지 담은 마스터플랜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장성, 엘로우를 입다' '도시, 엘로우를 품다' '황룡강, 엘로우로 물들다' '엘로우, 자부심이 되다'라는 네 가지 기본 실천 계획이다. 엘로우시티 프로젝트의 탄생 및 진행 과정을 더듬고 미래 청사진도 알아본다.

#### ● '장성, 엘로우를 입다'

노란색을 장성의 상징 색으로 규정하고 장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엘로우시티 프로젝트' 내용을 알리는 영상과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해 옛 장성이 노란색을 상징 색으로 선택했는지,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알리

### 전국이 주목한 지자체 첫 컬러마케팅...장성의 자부심 되다

는 모든 작업을 포괄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엘로우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한 장성군의 모든 홍보는 이 계획 아래 전개되고 있다.

#### ● '도시, 엘로우를 품다'

장성 도시의 마스터플랜이다. 고려시멘트 시설물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장성의 랜드마크인 '에펠탑'과 장성의 명품 거리인 '애기사과의 거리'를 조성하고, 장성역 광장을 휴식과 만남이 있는 화합의 장소로 만들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옮겨놓은 듯한 가계를 조성해 중앙로를 문화 예술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라는 전체 구상 아래서 도시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장성군은 도로 확장, 공공실버주택 조성, LH공공임대아파트, 신광철도박스 등 모든 도시계획을 '도시, 엘로우를 품다' 구상에 포함했다.

#### ● '황룡강, 엘로우로 물들다'

황룡강을 전국 최고의 하천으로 재생하는 실천 계획이다.

용의 머리 부분인 황미르랜드는 용의 앞발 부분인 개천 합류부, 용의 몸통 부분인 장성대교-문화대교 구간, 용의 뒷발 부분인 취암천 합류부, 용의 꼬리 부분인 제1황룡교-장성보 구간을 각기 다른 콘셉트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취암천 합류부에서 '건강한 신체, 융성하는 문화'라는 콘셉트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장성공설운동장을 건립 중이다. 또 황룡강 전체엔 '길고 달리는 명품 길'이라는 콘셉트로 명품 자전거길(장성호부터 오룡교까지 18km)과 들레길(방구다리서 제1황룡교까지 3.5km)을 조성했다.

#### ● '엘로우, 자부심이 되다'

관과 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프로젝트다. 장성군은 뜻과 식물을 연간 82만2,000본씩 생산하는 '엘로우 식물은행'을 운영해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꽃동산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엘로우 감성 디자인단'을 구성해 '엘로우시티'와 관련한 사업을 벌일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



황룡강변에 설치된 '황룡강 르네상스' 안내 표지판.

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엘로우시티 네이밍 선정단'을 조직해 공공시설물에 주민이 직접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고려시멘트는 사설로 디자인·시공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법으로 거버넌스에 동참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